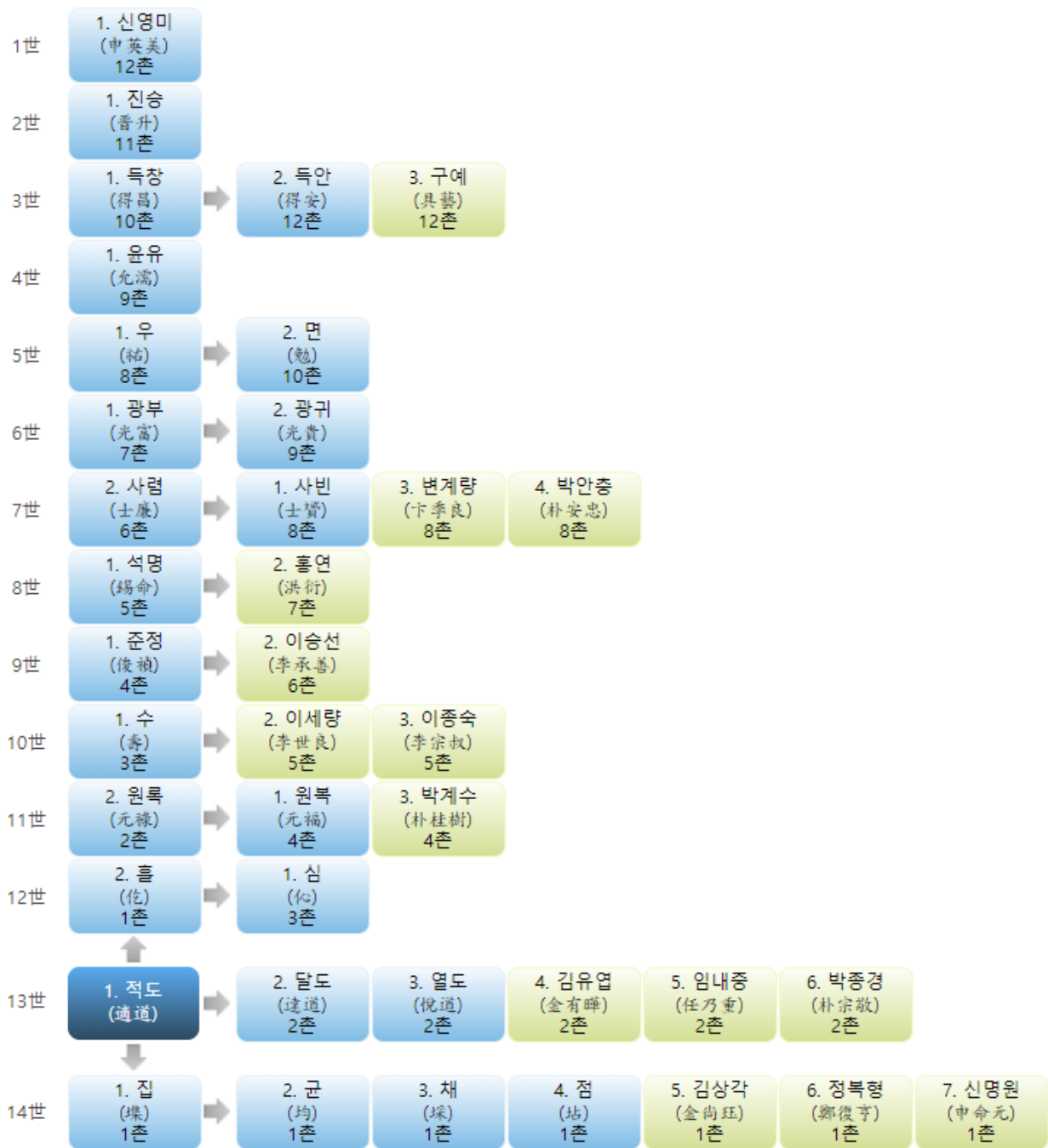


호계선생유집(虎溪先生遺集) 신적도(申適道)

13世 적도(適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元祿)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신적도(申適道)

항목 ID	GC05200996
한자	申適道
이칭/별칭	호계(虎溪)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김용만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574년 - 신적도 출생
활동 시기/일시	1606년 - 신적도 진사시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627년 - 신적도 상운도 찰방에 임명
몰년 시기/일시	1663년 - 신적도 사망
추모 시기/일시	1867년 - 신적도 호조 참의에 추증
활동지	상운도 - 강원도 양양군
활동지	건원릉 - 경기도 구리시
사당배향지	단구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성격	관료·의병
성별	남
대표 경력	증 호조 참의(戶曹 參議)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관료이자 의병.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호는 호계(虎溪). 아주 신씨 의성읍 파조(派祖) 신광부(申光富)의 후손이다. 할아버

지는 신원록(申元祿)이고, 아버지는 신흘(申伋)이고, 동생은 신달도, 신열도이다.

[활동 사항]

신적도(申適道)[1574~1663]는 청년기에 한강 정구와 여헌 장현광에게 배웠다. 학문과 효행이 뛰어났다. 1606년(선조 39)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임금이 피난길에 나서고 국사가 어지러운데 신하된 사람으로 산하에 묻혀 구차하게 생활을 도모할 때가아니다.” 하며 원근의 동지들과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준비하여 밤낮 달려가니 이미 화의를 맺어 적이 물러간 뒤라 이전에 소장을 올려 장한 일이란 비답(批答)을 받고 나라로부터 상운도 찰방(祥雲道 察訪) 벼슬이 내려졌다.

병자호란 때에도 의성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오랑캐와 화친할 수 없으며, 이를 배척한다는 뜻에서 “척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 어찌 강화파들은 반대한단 말인가? 오랑캐가 겁나 두려워함이라. 망국꼴 보려는 왕손매의 심정이구나.” 라는 척화시(斥和詩) 읊었고, 군사와 양곡을 나라에 바쳤다. 나라에서 건원릉 참봉(健元陵 參奉)의 벼슬이 내려졌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기 위해 서울에 가서 사은(謝恩)의 예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학리의 학소대에 채미헌(採薇軒)을 짓고, 날마다 『춘추(春秋)』를 읽으며, 비분강개(悲憤慷慨)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소주(韶州) 산곡에 대명(大明)의 일월이 비친다고 했다.

[저술 및 작품]

생전에 쓴 글을 모은 『호계문집(虎溪文集)』 6권 3책이 있다.

[상훈과 추모]

1867년(고종 4) 호조 참의 증직이 내려졌으며, 단구 서원(丹邱 書院)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호계집(虎溪集)』

『경상도 읍지(慶尙道 邑誌)』

『조선 환여 승람(朝鮮 寰輿 勝覽)』

『교남지(嶠南誌)』

『의성의 전통』(의성군, 1982)

『의열의 메아리』(박인걸 편, 1983)

호계선생유집(虎溪先生遺集)

서지사항

서지내용		
서명	호계선생유집 (虎溪先生遺集)	
저자	성명	신적도(申適道)
	자	사립 (士立)
	호	호계 (虎溪)
판사항	木版本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1919	
권수	6	
체크기	30.1×20.6 cm	
사부분류	별집류	
기타사항		

해제

서발(序跋)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들 신채(申埰)가 유집(遺集) 7책을 편집하여 후일에 간행하려고 宗家에 보관하였는데, 1874년에 화재가 일어나 모두 불타버렸다고 한다. 이에 후손들이 신적도의 유문(遺文)을 널리 수집하여 문집을 편집하는 한편 행장·묘도문·서발(墓道文·序跋) 등을 받아 간행하였다.

권수에 유필영(柳必永)의 서문, 권말에 신상헌·곽도·이중구·신상하·신돈식(申相憲·郭鉤·李中久·申相夏·申敦植)의 발문이 있으며 각 권수에 목록이 실려 있다. 卷1에 歌와 操 각 1편·시 42題 50首·疎 3편·書 16편, 卷2에 잡저 12편·箴銘 4편·祭文 6편, 卷3과 권4에 창의록(倡義錄)이 실려 있다. 卷5와 卷6은 부록으로 卷5에 유사(遺事)와 행상·묘표(行狀·墓表) 등 17편, 卷6에 사우유찰(師友遺札) 10편·제문 3편·만사 22수·

증은하장(贈恩賀章) 39수·후서와 발문 등 5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평소 친족 및 師友 등과 수창한 시편 내지 병자호란을 즈음하여 지은 시편이 많고, 유성룡·정구(柳成龍·鄭逵) 등을 애도하며 지은 만시도 14수가 실려 있다. 소(疏)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斥和를 주장한 상소와 김엽·김욱·김찬(金燁·金煜·金燦) 삼열사(三烈士)의 褒獎을 청한 상언이 있으며, 편지는 정구·장현광·정경세·이준·이경석·정온(鄭逵·張顯光·鄭經世·李俊·李景奭·鄭蘊) 등의 사우(師友) 및 자식들에게 보낸 것이다. 잡저에는 성·심·정·의·지·인의예지·태극·음양(性·心·情·意·志·仁義禮智·太極·陰陽) 등에 대하여 논변한 글, 집안사람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지은 글, 채미헌(採薇軒)을 건립하고 지은 기문과 상량문 등이 있으며, 제문은 신우·정구·장현광·신달도(申祐·鄭逵·張顯光·申達道) 등 사우(師友) 내지 집안사람들을 치제할 때 지은 것이다. 창의록(倡義錄)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창의(倡義) 관련 기록을 모은 것으로 卷3에는 정묘호란 때 신적도가 사민(士民)과 의소(義所)에 보낸 글 및 호소사(號召使) 장현광(張顯光)과 정경세(鄭經世)에게 올린 글, 임금의 교서(敎書)와 유서(諭書), 호소사(號召使)와 관향사(管餉使)의 관문(關文) 등이 실려 있고, 卷4에는 병자호란 때 신적도가 의성현의 사민에게 보낸 글, 1636년 12월 20일부터 1637년 2월 9일까지 의병에 참여했을 때의 주요 일정과 주변의 동정을 적은 倡義日錄이 있고, 말미에 신점·강난형·장석영(申沾·姜蘭馨·張錫英)이 창의록(倡義錄)에 붙인 발문 등이 실려 있다. 卷5에는 신적도의 학행과 충절 등을 적은 유사·행상·묘표·묘갈명(遺事·行狀·墓表·墓碣銘) 및 단구서원(丹邱書院) 배향 관련 봉안문(奉安文)과 축문(祝文), 1867년 이조참의(吏曹參議) 추증과 관련된 상계·초계·교지(狀啓·草啓·教旨) 및 고유문·상언·통문(告由文·上言·通文) 등이 실려 있다. 卷6에는 장현광·정온(張顯光·鄭蘊) 등이 신적도에게 보낸 10편의 편지를 모은 사우유찰(師友遺札), 정유숙(鄭惟熟) 등이 지은 3편의 제문, 김응조(金應祖) 등이 지은 22수의 만사, 강난형(姜蘭馨) 등이 1867년 신적도의 이조참의 추증을 기념하여 지은 39수의 축시(祝詩)가 실려 있다.

저자소개

신적도(申適道)

1574~1663(선조 7~현종 4). 字:士立, 號:虎溪, 本貫:鵝洲, 父:屹, 母:順天朴氏, 居:義城.

신적도는 좌승지에 추증된 성은 신희(城隱 申乞)과 부위 박윤(副尉 朴倫)의 딸 순천 박씨 사이에서 1574년(선조 7) 12월 29일 의성 도암리(義城 陶巖里) 집에서 출생하였다. 할아버지는 원록(元祿)으로 이황과 주세붕에게 수학하여 효학(孝學)으로 정려되었으며, 후에 호조참의에 추증되고 장대서원(藏待書院)에 배향되었다. 신적도는 신우·신원록(申祐·申元祿) 등 충효를 중시하는 가학(家學)의 연원을 이었고, 또한 정구(鄭逵)와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 출입하여 李滉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1605년(선조 38) 향시에 장원하자 유성룡(柳成龍)이 그 재주를 칭찬하였고, 1606년 막내 열도(悅道)와 함께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614년(광해군 6) 부모상을 당하자 정성을 다하여 3년상을 치렀다.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론(廢母論)에 가담하였던 정조(鄭造)가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1620년 의성의 빙계서원(氷溪書院)에 와서 원안(院案)에 이름을 적고 가자 칼로 없애버렸고, 후일 심문에 임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호소사(號召使) 장현광이 의성현의 의병장으로 추천하였고, 의병을 규합하여 북상하던 중 강화가 이미 체결되자 식량을 서울로 수송하고 대궐에 가서 척화의 상소를 올렸다. 임금이 그 뜻을 가상하게 여겨 비답을 내리고 상운도찰방(祥雲道察訪)에 임명하였다. 부임한 뒤 몇 년이 되지 않아 말을 살피우고 백성들을 소생하게 하였으나 병이 들어 돌아가게 되자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 공덕을 기렸다. 1632년 제능참봉(齊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다시 건원능참봉(健元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은숙배하고 돌아갔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의병을 이끌고 광주 남한산성(廣州 南漢山城)으로 들어갔으나 이미 강화를 체결하는 과정인지라 상소를 올려 척화(斥和)가 나라를 그르치는 일임을 역설하고, 김상헌·정온(金尙憲·鄭蘊) 등과 통곡한 뒤 칠언절구 1수를 지어 자신의 뜻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1월 30일 임금이 끝내 淸主에게 항복하기에 이르자 고향으로 돌아와 학산 미곡(鶴山 薇谷) 아래에 채미헌(採薇軒)을 짓고 강학(講學)을 하며 지내다가 1663년(현종 4) 7월 1일 正寢에서 90세로 임종하였다. 12월 20일 안평면 응봉(安平面 鷹峯)에 장례를 지냈다. 부인은 집의 사철(執義 師哲)의 현손녀이자 첨정(僉正) 순(淳)의 딸 파평윤씨(1574~1660)로 4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집·균·채·점(堦·均·埰·玷)이고, 딸은 김상각(金尙珏)과 정부형(鄭復亨)에게 출가하였다.

저자는 평소 동생 달도·열도(達道·悅道)와 시문을 수창하며 형제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였으며, 이준·정은·조경·전식·김응조·유진(李俊·鄭蘊·趙綱·全湜·金應祖·柳軫) 등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었다. 1856년(철종 7) 고을 사람들이 단구서원(丹邱書院)을 건립하여 배향하였고, 1867년(고종 4) 암행어사 박선수(朴瑄壽)의 장계로 인하여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책목록

호계선생유집(虎溪先生遺集)

호계집 권지일(虎溪集 卷之一)

호계선생유집서(虎溪先生遺集序)

가(歌)

채미가(採薇歌)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서자 백이숙제(伯夷叔齊)처럼 학산(鶴山)에 올라 고사리를 캐먹으면서 절의를 지키겠다는 뜻을 표현하였다

조(操)

학산구조(鶴山九操)

학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읊으면서 조정과 명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9편의 작품에 담았다

시(詩)

호계정사(虎溪精舍)

한거(間居)

진보[열도]제여김효징[응조]자갈산래도, 음성일절, 어극비창, 수화루이차. (晉甫[悅道]弟與金孝徵[應祖]自葛山來到、吟成一絕、語極悲愴、遂和淚以次。)

형보[달도]진보이제, 이세만하, 이검오돌, 분운영회, 사치부범, 난연가관. 여독부가무일어, 수구줄이시. [기미](亨甫[達道]晉甫二弟、以歲晚何、以黔吾突、分韻詠懷、詞致不凡、爛然可觀。余獨不可無一語、遂構拙以示。[己未])

무흘월야우음(武屹月夜偶吟)

배러헌선생우암재인강계사유감(拜旅軒先生于巖齋因講繫辭有感)

증별리석담[윤우](贈別李石潭[潤雨])

독회재선생집유감(讀晦齋先生集有感)

謁陶山院仍講先生集(謁陶山院仍講先生集)

영세심정(詠洗心亭)

讀離騷(讀離騷)

야송감흥시(夜誦感興詩)

문로병범경(聞虜兵犯境)

병자십이월, 적함강도. 빈궁숙의원손이대군부마공주병입핍축전월, 흑피창락투강, 운부승비분. (丙子十二月、賊陷江都。嬪宮淑儀元孫二 大君駙馬公主并入逼逐顛越、或被搶掠 投江、云不勝悲憤。)

상출도성, 향남한병. 일러반루, 야부침. 군료근시, 흑지동뇌운. 급차시, 신자분. 의고륙병투란, 탈위순절. 고수두려, 수량직. 부행재. (上出都城、向南漢併。日糲飯屢、夜不寢。羣僚近侍、或至凍餒云。及此時、臣子分。義固 勒兵投亂、脫危殉節。故遂糾旅、輸糧直。赴 行在。)

창의서부도중구점(倡義西赴途中口占)

광릉성음시동의제공[정동계은조룡주경김청음상헌](光陵성음시동의제공[鄭桐溪蘊趙龍洲綱金淸陰尙憲])

송별삼학사[홍익한, 오달제, 윤집](送別三學士[洪翼漢、吳達濟、尹集])

문김엽지쌍령패몰(聞金燁至雙嶺敗沒)

적퇴후, 낙중제우유소집청요, 수시이사. (賊退後、洛中諸友有小集請邀、遂詩以謝。)

화리백헌상공[경석](和李白軒相公[景奭])

환향(還鄉)

도삼탄유감(到三灘有感)

왕고회당부군이효학정증、축감음。(王考悔堂府君以孝學旌贈、逐感吟。)

채미헌우제(採薇軒偶題)

지재지감(智齋志感)

영김송은[광수]만년송(詠金松隱[光粹]萬年松)

차권자정[수경]자악당운(次權子正[守經]自樂堂韻)

우차자정천운대운(又次子正天雲臺韻)

서애선생만(西厓先生輓)

한강선생만(寒岡先生輓)

여헌선생만(旅軒先生輓)

만정우복[경세](輓鄭愚伏[經世])

만인재최공[현](輓訥齋崔公[現])

만오봉종장[지제](輓梧峯宗丈[之悌])

만리경정[민성]이수(輓李敬亭[民成]二首)

만신하음[즙](輓申河陰[楫])

만리자암[민환](輓李紫巖[民奩])

만권호양[익창](輓權湖陽[益昌])

만최완해[산휘](輓崔完海[山輝])

만김좌랑[회](輓金佐郎[淮])

만종제여원[지도](輓從弟汝遠[志道])

소(疏)

청파화의소[정묘](請罷和議疏[丁卯])

정묘호란 때에 강화 체결을 반대하며 올린 상소. 우리나라는 명나라와의 대의(大義)가 중요한데, 이제 오랑캐의 침입으로 인하여 강화를 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성덕을 그르치고 후세에 비웃음을 받을 일이니 화의(和議)를 물리치고 대의를 펼치기를 청하였다

청척화소[병자](請斥和疏[丙子])

병자호란 때에 척화를 주청한 상소. 오랑캐의 침범으로 종묘사직은 강화도에 달려 있고 임금은 남한산성에 몽진하였으니 전장에 나아가 국난에 목숨을 바칠 때이다. 그런데 나라를 그르치는 화의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오랑캐와 군신의 관계를 맺어 백성을 오랑캐로 만드는 것이다. 임진왜란을 극복하였듯이 君臣 상하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이 급선무이니 빨리 화의를 물리쳐서 기강을 세우기를 청하였다

삼열사[김엽김욱김찬]포렬상언(三烈士[金燁金煜金燦]褒烈上言)

의성 출신 3형제 김엽·김욱·김찬(金燁·金煜·金燦)이 1637년(인조 15) 1월에 전사하자 그들의 의열(義烈)을 포장하여 줄 것을 청한 상언. 김엽 등은 김진고(金振古)의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정묘호란 때에 창의하였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신의 휘하에 들어와 쌍령(雙嶺)에 이르러 적병과 싸우다가 삼형제가 함께 전사하였다. 김엽 등 삼형제의 의열을 포장하여 그들을 위무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서(書)

상한강정선생(上寒岡鄭先生)

한강 정구(寒岡 鄭述) 선생에게 올린 편지. 5월 20일에 평안하다는 편지를 받고 위로가 되지만 가르침을 저버리고 벗들의 기대를 잃어 두렵다.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는 퇴계 선생이 일생의 공력을 들여 10책으로 초선(抄選)하여 후세에 전하려고 한 것이다. 당시 인출(印出)하려는 논의가 문하에서 나왔을 때 선생이 그만두게 한 것은 지극한 교훈이다. 지난 날 무흘(武屹)에서 강정(講定)한 논의는 매우 정당하다

상한강선생(上寒岡先生)

한강 정구 선생에게 올린 편지. 문하를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모함이 깊다. 요즘 다섯 선생의 예설(禮說)을 절충하여 일통(一統)하였으니 사문(斯文)의 은혜라 할 수 있다. 저는 근래 태만하여 죄를 얻음이 깊는데, 가르침을 주어 전일의 잘못을 보정(補正)하였으면 한다

상여헌장선생(上旅軒張先生)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 선생에게 올린 편지. 선생을 떠나온 뒤 아버이를 모시느라 공부에 힘을 쓰지 않아 매양 한탄이 끊이지 않는다. 조만간에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

여정우복 (與鄭愚伏)

우복 정경세(愚伏 鄭經世)에게 보낸 편지. 후금이 침입하여 국가가 어려운 지금 의병장에 추대되었으나 忠勇信威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충분(忠憤)이 격발되어 사양할 수 없으니 군량(軍糧)을 모집하여 발행하려고 한다

여정우복 (與鄭愚伏)

우복 정경세에게 보낸 편지. 현인(賢人)을 사당에 배향함은 우리나라에서 우선으로 하는 바이다. 이제 尙州 경현사(景賢祠)에 충효를 검전한 고려말의 명신 신우(申祐)를 배향하려 하니 고을의 인사들이 모두 기뻐한다. 그런데 신우의 무덤에 위의를 갖추기 위하여 비갈(碑碣)을 세우려 하니 비문(碑文)을 지어주기 바란다

여이창석(준,1627) (與李蒼石(竣,1627))

창석 이준(蒼石 李竣)에게 보낸 편지. 정묘호란이 일어나 국가가 위급한 지금 그대가 경상도의 관향사(管餉使)가 되었고, 나는 여러 읍의 의병장이 되어 병량(兵糧)을 모집하여 국난에 나가기 위해 수일 내로 출발하려 한다. 本陣이 지나는 고을에 군수물자를 조달하여 나라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면 다행이다

여이백헌(경석) (與李白軒(景奭))

백헌 이경석(白軒 李景奭)에게 보낸 편지. 가을날 안부를 묻고 보살핌으로 직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책이 없고 백발이 생겨 서글프다

답정동계(은) (答鄭桐溪(蘊))

동계 정은(桐溪 鄭蘊)에게 답한 편지. 서로 병이 들어 방문할 수 없음이 안타깝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미산(薇山)에 정자를 지어 여생을 마치려 한다. 그러나 서북쪽의 소식을 들으니 분노가 일고 옛날 함께 하던 사람들과 같이 죽지 못함이 한스럽다

여유수암(진) (與柳修巖(疹))

수암 유진(修巖 柳疹)에게 보낸 편지. 외진 곳에 머물며 탄식하는데, 요즘 『대학(大學)』 몇 조목을 보며 조금 본지(本旨)를 알게 되었으나 명백히 질정할 수 있는 이가 없어 적어 보내니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여김군신(수인) (與金君愼(守訥))

군신 김수인(君愼 金守訥)에게 보낸 편지. 서울에서 헤어져 고향으로 돌아온 뒤 그리움이 심하다

여김이를(치관) (與金而乘(致寬))

이를 김치관(而乘 金致寬)에게 보낸 편지. 병이 들어 기력이 쇠해지고 그대를 찾아가고 싶지만 방도가 없다. 어제 사제(舍弟)의 글을 받고 조정에서 재해를 입은 여러 고을에 창고의 쌀을 푼다고 하여 백성들이 소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로 만날 수 없어 매우 한탄스럽다

여업유재회중 (與業儒齋會中)

의성 업유재(業儒齋)의 회원에게 보낸 편지. 병이 점점 심해져 고생하고 있다. 지난날 주세붕(周世鵬)이 백운서원(白雲書院)과 업유재(業儒齋)를 세워 현사(賢士)를 존양(尊養)하는 장소로 삼아 후학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제 우리 고을에 주세붕이 했던 전례를 따라 장천원(長川院)과 업유재를 세웠다. 이후 우리 고을에 사풍(士風)이 진작되리니 여러 군자들은 업유재를 세운 본 뜻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한다

기백아집 (寄伯兒堦)

큰아들 신집(申堦)에게 보낸 편지. 후금군(後金軍)의 침입으로 병량(兵糧)을 모집하여 서북으로 진군한 지 10여일인데, 죽기를 각오하고 진격할 것이다. 용병(用兵)은 식량이 중요하니 너는 식량 모집을 독려하여 끊어지는 근심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기숙아채 (寄叔兒塚)

셋째아들 신채(申塚)에게 보낸 편지. 몇 달 전에 집을 떠나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아들의 안부를 걱정한 뒤 사서(四書)와 낙민(洛閩)의 여러 서적, 퇴계(退溪)의 유집(遺集)을 읽어 국가에서 선비를 기르는 본뜻을 저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기계아점 (寄季兒站)

막내아들 신점(申站)에게 보낸 편지. 여러 달 집을 떠나 집안 소식이 궁금한데, 너는 독서에 지나치게 힘을 써서 건강을 해치지 말고, 지금 읽고 있는 성현의 글은 뜻이 매우 어렵지만 잠심하여 궁구한다면 자득(自得)할 수 있으리니 힘쓰라고 당부하였다

호계선생유집권지이(虎溪先生遺集卷之二)

잡저(雜著)

상한강정선생 (上寒岡鄭先生)

한강 정구(寒岡 鄭述) 선생에게 올린 편지. 5월 20일에 평안하다는 편지를 받고 위로가 되지만 가르침을 저버리고 벗들의 기대를 잃어 두렵다.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는 퇴계 선생이 일생의 공력을 들여 10책으로 초선(抄選)하여 후세에 전하려고 한 것이다. 당시 인출(印出)하려는 논의가 문하에서 나왔을 때 선생이 그만두게 한 것은 지극한 교훈이다. 지난 날 무흘(武屹)에서 강정(講定)한 논의는 매우 정당하다

상한강선생 (上寒岡先生)

한강 정구 선생에게 올린 편지. 문하를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모함이 깊다. 요즘 다섯 선생의 예설(禮說)을 절충하여 일통(一統)하였으니 사문(斯文)의 은혜라 할 수 있다. 저는 근래 태만하여 죄를 얻음이 깊은데, 가르침을 주어 전일의 잘못을 보정(補正)하였으면 한다

상려헌장선생 (上旅軒張先生)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 선생에게 올린 편지. 선생을 떠난 뒤 아버이를 모시느라 공부에 힘을 쓰지 않아 매양 한탄이 끊이지 않는다. 조만간에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

상여헌선생(1627) (上旅軒先生(1627))

여헌 장현광 선생에게 올린 편지. 정묘호란 때 장현광이 경상도 호소사(號召使)에 임명되어 자신을 의병장에 임명하자 평소에 들은 바는 忠孝이니 병량(兵糧)을 모집하여 지휘를 따르고 조정에 보답하고자 한다

성설 (性說)

인간의 본성이 선함을 논한 說. 공자와 맹자 이후 순자·양자·한자·소씨·호씨(荀子·楊子·韓子·蘇氏·胡氏) 등이 나와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여러 이론을 내었지만 물의 성질을 예로 들어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함을 강조하였다

심설 (心說)

심(心)의 작용에 대하여 논한 說. 심(心)은 성(性)과 지각(知覺)을 합한 활물(活物)로 성정(性情)을 체용(體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정(動靜)에 있어 늘 심(心)을 잡고 있지 않으면 안됨을 역설하였다

정의변 (情意辨)

정(情)과 의(意)에 대하여 분석한 변(辨). 정(情)은 성(性)이 동(動)한 것이고 의(意)는 심(心)이 발(發)한 것으로 정의는 선후 관계에 있지만 심성(心性)의 작용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지의변 (志意辨)

지(志)와 의(意)에 대하여 분석한 변(辨). 지와 의는 마음이 동한 바이나 志는 공·강·양(公·剛·陽)하고 의는 사·유·음(私·柔·陰)하여 둘 사이에는 경중과 선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심성정지의변 (心性情志意辨)

심·성·정·지·의(心·性·情·志·意)의 맥락과 선후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변(辨). 주자(朱子)와 북계진씨(北溪陳氏) 등의 학설을 인용한 뒤 다섯 가지의 선후를 사람이 가는 길과 물이 가득 찬 그릇에 비유하여 성→심→정→지→의(性→心→情→志→意)로 풀이하였다. 사람이 가는 길에 비유하면 길은 성(性)이고, 사람은 심(心)이고, 발을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것은 정(情)이고, 발을 움직여 길을 가는 것은 지(志)이고, 길을 가며 몇 리를 갔는지 헤아리는 것은 의(意)라고 하였다

인의예지설 (仁義禮智說)

인의예지(仁義禮智)에 대해 논한 설(說). 태극→음양→오행→만물(太極→陰陽→五行→萬物)의 변환 과정에서 인간이 만물에서 가장 존귀한 이유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맹자·주자·호운봉(孟子·朱子·胡雲峯) 등의 설과 사단·사덕·사행·사방·사장(四端·四德·四行·四方·四臟) 등을 들면서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체용(體用)의 미묘함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무극이태극설 (無極而太極說)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임을 논한 설(說). 주돈이의 무극이태극설(無極而太極說)을 인용하여 무극과 태극은 동일한 개념으로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을 주재하는 근본임을 밝혔다.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라 한 것은 무극(無極)만을 쓴다면 공적(空寂)에 빠질까 염려해서이다

음양설 (陰陽說)

음양(陰陽)이 천지와 인물의 무한한 순환을 주관하는 원리임을 논한 설(說). 음양에서 오행이 나오는데, 오행·사덕·사방·사단(五行·四德·四方·四端)은 물론이고 천지만물의 모든 것이 음(陰)과 양(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순환과 동정(動靜)이 끊임없이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용학도후식 (庸學圖後識)

중용도(中庸圖)와 대학도(大學圖)에 붙인 글.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은 규모가 같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두 책의 본문과 장구(章句), 소주(小註) 등에서 긴요한 것을 취하여 량도(兩圖)를 만들었으니 배우는 사람들이 입덕(入德)과 입도(入道)의 방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하였다

가계오조 (家戒五條)

집안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수신·제가·무농·독서·취우(修身·齊家·務農·讀書·取友) 등 다섯 조목을 적고 자세하게 풀이한 글. 수신(修身)은 입심·성경·시청언동(立心·誠敬·視聽言動)을 총괄하고 바탕으로 하니 수신이 매우 중요하고, 제가(齊家)는 부자·형제·부부(父子·兄弟·夫婦)

의 정륜(正倫)에 달려 있다. 무농(務農)은 진력(盡力)에 달려 있으니 때에 맞추어 농사를 짓고 힘을 다한다면 처자를 양육하여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 독서(讀書)는 방심(放心)을 구함에 달려 있으니 독서할 때에는 마음을 바로잡아 구독(句讀)하여야 한다. 취우(取友)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선택하여 나의 덕업(德業)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채미헌기(1638) (採薇軒記(1638))

1638년(인조 16) 8월 의성 동쪽의 薇谷 아래 성동(城洞)에 채미헌(採薇軒)을 건립한 뒤에 지은 기문(記文). 채미헌 주변의 지리와 풍경을 적은 뒤 임진왜란 때에 집안 식구를 이끌고 미곡에 들어간 적이 있었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창의(倡義)하여 척화를 주장한 적이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미곡에 몇 칸의 모옥(茅屋)을 지어 채미헌이라 이름을 짓고 여생을 마치려 한다

채미헌상량문(1638) (採薇軒上梁文(1638))

1638년 채미헌을 세울 때에 지은 上梁文.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끝내 강화가 체결되어 모든 일이 어그러지게 되었다. 백이숙제(伯夷叔齊)의 절의를 사모하여 미곡에 집을 짓고 명나라 신종(神宗)의 옛 은혜를 생각하며 살려고 한다

잠명(箴銘)

존양잠 (存養箴)

존심양성(存心養性)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한 箴. 흐르는 세월 속에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고 天理를 함양하면서 살겠다

성찰잠 (省察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근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한 잠(箴). 일과 생각이 서로 작용하여 선악(善惡)이 나누어지게 되니 근신하면서 사물의 기미를 살피고자 한다

동벽명 (東壁銘)

동쪽 벽에 자신이 지향하는 삶에 대하여 적은 명(銘). 인욕을 억제하고 천리를 보존함에 조금도 소홀하게 하지 않아 성현(聖賢)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서벽명 (西壁銘)

서쪽 벽에 유학의 道統에 대하여 적은 銘. 유학의 도통은 복희·요순·우탕·문무(伏羲·堯舜·禹湯·文武)·주공과 소공·공자·증자·맹자·주돈이·정호와정이·장재·소옹·주희로 이어져 찬란히 빛난다고 하였다

제문(祭文)

퇴재선조원향시제묘문 (退齋先祖院享時祭墓文)

퇴재 신우(退齋 申祐)를 속수서원(涑水書院)에 배향할 때 무덤에 제사를 올리면서 지은 제문. 고려말에 태어나 충직한 관리로 활동하였으나 나라가 망한 뒤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지극한 효성으로 대나무가 돌아나서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이제 고을에서 사당을 세워 배향하게 되었기에 후손들이 묘제(墓祭)를 지내면서 고한다

제한강선생문(1620) (祭寒岡先生文(1620))

한강 정구(寒岡 鄭逵)(1543~1620)의 죽음을 애도하고 덕행을 기린 제문. 정구 선생은 도덕을 겸비한 유림의 종장으로 임금께 충성하고 후학 양성에 힘썼으나 이제 돌아가시니 슬픔을 그칠 수가 없다

제여헌선생문(1637) (祭旅軒先生文(1637))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1554~1637)의 죽음을 애도하고 덕행을 기린 제문. 장현광 선생은 학문의 연원이 깊고 산림에 뜻을 두면서도 임금께 주소(奏疏)를 올려 극론하였는데, 이제 돌아가심에 한바탕 통곡한다

제이경정문(대빙계유생작,1629) (祭李敬亭文(代氷溪儒生作,1629))

빙계서원(氷溪書院)의 유생을 대신하여 경정 이민성(敬亭 李民歲)(1570~1629)의 죽음을 애도한 제문. 어려서 과거에 급제하여 시문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일처리에 치밀하였다. 우리 고을의 서원은 공에게 힘입은 바가 큰데 갑자기 죽었기에 눈물을 흘리며 술잔을 올린다

제신하음문(1639) (祭申河陰文(1639))

하음 신즙(河陰 申楫)(1580~1639)의 죽음을 애도한 제문. 공은 나의 지기(知己)로 재주가 뛰어났으나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에 술잔을 따르며 애도한다

제중제수찬문(1631) (祭仲弟修撰文(1631))

수찬(修撰)을 역임한 동생 신달도(申達道)(1576~1631)의 죽음을 애도한 제문. 우리 형제는 1614년에 부모상을 당한 이후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작년에 계수(季嫂)·누이·사위가 연달아 죽고 올해 또 네가 죽으니 매우 슬프다. 너는 효친(孝親)의 정성과 忠君의 절개가 있었는데, 하늘이 이리 빨리 너를 데리고 가니 의지할 이도 없어 슬픔이 끝나지 않는다

호계선생유집권지삼(虎溪先生遺集卷之三)

창의록(倡義錄)

서(1868) (序(1868))

1868년(고종 5) 10월 김대진(金岱鎭)이 창의록(倡義錄)에 붙인 서문. 군여(軍旅)는 조두(俎豆)에 포함되어 있어 유자(儒者)가 힘쓸 바가 아닌데, 신적도(申適道)가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 공은 어려서 정구와 장현광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사문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창의하여 척화를 주장하였고, 난리가 끝난 뒤에 산림에 은거하다 세상을 마쳤다. 1867년에 도학과 총절로써 이조참의에 추증되었으며, 후손들이 문집 약간 권과 정병록(丁丙錄) 1책을 내어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기에 적는다

지략(1637)3(誌略(1637))

신적도가 병자호란이 끝난 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관련 문자를 모아 엮은 책에 붙인 글. 나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창의(倡義)하였으나 강화가 이루어져 통곡하며 돌아왔다. 전후의 여러 문자와 日記, 조목 등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통유일향사우문(1627) (通諭一鄉士友文(1627))

정묘호란 때 의성 고을의 士友들을 효유(曉諭)하기 위하여 돌린 통문(通文). 오랑캐가 침입하여 조정과 국토가 유린되고 있으니 선비들은 충의를 떨쳐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싸워 공을 세우기를 바란다

재유문(1627) (再諭文(1627))

정묘호란 때 의성 고을의 사우(士友)들에게 돌린 두 번째 통문(通文). 평소 독서하고 의리를 강구하던 선비들은 국가의 변란을 만난 지금 목숨을 바쳐 국난에 나가 충의를 떨쳐야 한다

삼유문(1627) (三諭文(1627))

정묘호란 때 의성 고을의 사우들에게 돌린 세 번째 통문(通文). 나라가 난리를 만나 임금이 몽진한 지금 충의를 떨쳐 일어나야 한다. 의병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후일 임금께 아뢰어 죄를 줄 것이니 세 번째 통문에 호응하여 참여하기를 바란다

유각면모속유사문(1627) (諭各面募粟有司文(1627))

정묘호란 때 의성 각면(各面)에서 곡식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돌린 글. 오랑캐가 침입하여 나라가 어지러운 지금 군량 모집이 시급하니 각면(各面)에서 곡식 모으는 일을 독려해야 한다

후록(1627) (後錄(1627))

정묘호란 때 의성 각면(各面)에서 군량(軍糧)과 군기(軍器) 등의 모집을 독려하기 위하여 11개의 조목을 적어 보낸 후록(後錄). 각면(各面)에서 군량(軍糧)과 군기(軍器) 등을 모집하는 담당자는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거행하되 한량·향리·역리·사포수(閑良·鄉吏·驛吏·私砲手) 등을 모두 의병으로 데려오고, 군기(軍器)는 본읍(本邑) 관아의 군기를 변통하고, 군량은 서로 상의하여 모으되 의병에 참여할 수 없는 이는 군량으로 대신토록 하고, 군량과 군기의 수송은 고을의 모든 사람을 차출하여 수행하고, 활쏘기와 총 쏘기에 능한 이는 죄를 지었어도 의병에 가담하러 한다면 허락한다. 이러한 조항을 따르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조정에 알릴 것이다

정좌도호소사(장현광)문(1627) (呈左道號召使(張顯光)文(1627))

정묘호란 때 경상좌도 호소사 장현광(號召使 張顯光)에게 올린 글. 오랑캐가 쳐들어와 나라가 어지러운 지금 선생께서 호소사로 와서 병량 모집을 독려하니 신하된 직분으로 충의를 떨쳐 일어날 때이다. 영을 따라 의병을 이끌고 나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며 차차 상황을 보고하고자 한다

정우도호소사(정경세)문(1627) 8(呈右道號召使(鄭經世)文(1627) 8)

정묘호란 때 경상우도 호소사 정경세(號召使 鄭經世)에게 올린 글. 의병을 이끌고 가던 도중 영이 이정훈(營吏 李廷薰)이 전달한 글 속에서 강화를 체결하려 한다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지난날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 종묘사직을 보존했는데, 지금 강화를 맺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 싸워서 종묘사직을 보존하려 한다

의소전령(1627) (義所傳令(1627))

의소(義所)에 보낸 전령(傳令). 호소사(號召使)의 관문(關文)을 보고 사기(士氣)가 진작되었다. 의성은 문헌의 고장이자 충효의 고을로 국난을 당한 지금 여러 동지(同志)가 충의로 떨쳐 일어나 적과 싸우고자 한다. 이제 군기와 군량을 갖추고 영에 따라 의병을 진격시켜 적과 싸워 공을 세우고자 하니 여러 사람들은 힘쓰기 바란다

의소방유(1627) (義所榜諭(1627))

의소(義所)에서 군량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한 글. 옛날부터 군량 모집은 군사의 급무였는데, 지금 조정에서 관향관(管餉官)을 파견하여 군량을 모집하러 하니 의병에 동참하는 여러 임원들은 힘써 참여해야 한다

교서(부,1627) (敎書(附,1627))

정묘호란 때 인조(管餉官)가 창의(倡義)하여 오랑캐와 싸울 것을 독려한 교서(敎書). 오랑캐가 침입하여 평안도와 황해도가 함락되고 나는 강도(江都)로 몽진하였으며, 적들은 안주(安州)를 지난 이후부터

여러 차례 글을 보내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거절하고 있다. 군대가 패하고 군량이 떨어지는 등 전황이 매우 불리하니 충신열사가 창의할 때이다. 수령과 사민(士民)은 병마(兵馬)를 조달하고 식량을 운반하여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국난(國難)에 나간다면 후하게 상을 내릴 것이다

유증외대소신료기로군민한량등(1627) (諭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間良等(1627))

정묘호란 때 仁祖가 중앙과 지방의 대소 신료와 기로·군민·한량(耆老·軍民·閑良) 등에게 내린 유서(諭書). 나의 부덕으로 이괄(李适)의 난이 있었고, 이제 또 오랑캐가 침입하여 나라와 백성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동안 백성의 신망을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지에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병량(兵糧)도 부족하고 지용(智勇)을 갖춘 이도 힘을 쓸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다. 호패(號牌)를 태우고 군적(軍籍)을 정리하여 유신(維新)하려고 하니 중외(中外)의 士民들은 충의(忠義)를 떨쳐 의병과 군량을 모집하고, 국난에 나가 힘써 싸우기를 바란다

선유삼도사민(1627) (宣諭三道士民(1627))

정묘호란 때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충청·전라·경상 3도의 士民들에게 내린 선유서(宣諭書). 오랑캐가 침입하여 임금은 강도로 파천(播遷)하고 나는 분조(分朝)를 이끌고 남쪽으로 가고 있다. 삼남의 백성들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때에도 창의하여 국난을 극복하였다. 이제 오랑캐가 침입하여 위태로운 지금 병량(兵糧)을 모집하여 강도를 호위하고 한강과 임진강을 막는다면 중흥의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임금께서 호패를 불사르고 실제 군안(軍案) 이외의 것을 없애버리고, 죄수를 석방하고 백성들의 폐단을 없앴으니 창의(倡義)하여 공을 세우도록 하라

의소초유문(1627) (義所招諭文(1627))

창의(倡義)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소(義所)에 보낸 글. 教旨의 간절한 뜻을 보니 지금은 충신과 의사가 의병에 참여하여 임금의 위급을 구하고 신하된 자의 도리를 해야 할 때이다

호소사관(부,1627) (號召使關(附,1627))

정묘호란 때 호소사가 경상도 열읍에 내려 보낸 관문(關文). 국가가 불행하여 오랑캐가 침입한 지금 호소사의 명을 받아 병량 모집을 독려하게 되었다. 여러 고을에서는 의병을 규합하고 군량을 모집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향교와 서원, 향소(鄉所), 대소의 인원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병량 모집에 참여하고, 군량을 많이 모집하는 자는 임금께 알려 조치하도록 하겠다

관향사관(정묘이월초륙일도부,1627) (管餉使關(丁卯二月初六日到付,1627))

관향사 이준(李俊)이 경상도 여러 고을에 내려 보낸 관문(關文). 나(李俊)는 어가가 강도로 파천한 지금 영남의 관향사로 임명되었고, 장현광과 정경세는 경상도 호소사가 되어 군량을 독려하고 있다. 군량은 전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바이니 원근에서 재물을 가벼이 하고 의를 중시하여 적극적으로 군량 모집에 참여하기 바란다

호계선생유집권지사(虎溪先生遺集卷之四)

창의록(倡義錄)

유일향대소인원문(1636) (諭一鄉大小人員文(1636))

병자호란 때 의성의 士民들에게 병량 모집에 동참하기를 독려한 유문(諭文). 오랑캐가 침입하여 변방의 성이 함락되고 어가가 파천하여 나라의 형편이 누란지세(累卵之勢)이니 이 글을 보는 이들은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적을 토벌하는 데에 나서 충의를 다해야 한다

후록(1636) (後錄(1636))

병자호란 때 의성의 사민들에게 군량(軍糧)과 군기(軍器) 등의 모집을 독려하기 위하여 5개의 조목을 적어 보낸 후록(後錄). 각면(各面)의 유사(有司)는 병량을 모집하되 협박하여 받지 말고, 부유한 집안들이 재물을 내도록 하여 군수(軍需)에 보탬이 되게 하고, 군량은 미리 작미(作米)로 만들어 운반하고, 군량을 낸 이들을 책자로 만들어 올려 보내면 임금께 아뢰어 후일 농공행상의 바탕으로 삼겠다

통유도내문(1636) (通諭道內文(1636))

병자호란 때 창의(倡義)에 동참하기를 독려하기 위하여 경상도 여러 고을에 보낸 통문(通文). 오랑캐가 10년 만에 다시 침입하여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 나는 초야의 선비이나 화급한 이때를 만나 의병을 일으켜 국난에 나가고자 한다. 경상도 여러 고을의 士民들은 충의를 떨쳐 일어나 무리를 규합하고 관군과 협동하여 적을 토벌해야 한다

절목(1636) (節目(1636))

병자호란 때 창이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도 여러 고을에 보낸 14개의 절목(節目). 관청에서 미처 징발하지 않은 장정을 모집하고, 정예 선발에 힘쓰고, 의병과 관군이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군량 모집에 동참하도록 적극 깨우치고, 병량(兵糧)을 모집하면 반드시 책자에 적고, 각 고을의 사포수(私砲手) 중에서 관군에 속하지 않은 이를 응모하여 우림위첩(羽林衛帖)을 주고, 서얼허통첩(庶孽許通帖) 300장을 조정에서 받아 종사관이 백미(白米) 10석에 내주도록 하고, 군법을 어겨 좇지 않는 자 중에서 장(杖) 20이하는 의병장이 처결하고 중한 자는 도의소(都義所)에 보고하여 시행한다

창의일록(1637) (倡義日錄(1637))

1636년(인조 14) 12월 20일부터 1637년 2월 9일까지 의병에 참여하였을 때의 주요 일정과 주변의 동정에 대하여 적은 일록(日錄). 1636년 12월 20일 창이의 뜻을 담은 유문(諭文)을 의성에 돌림. 22일 나를 의병대장으로 추대. 26일 궁수(弓手) 150명과 포수(砲手) 230여 명 및 지휘원(指揮員) 50여 명 등

합 400여 명을 이끌고 도원(桃院)에서 숙박. 27일 이른 아침에 군인에게 밥을 먹이고 비안(比安)에 도착. 28일 안계(安溪) 도착. 1637년 1월 1일 함창(咸昌) 도착. 3일 조령 동원(鳥嶺 東院) 도착. 5일 대추원(大秋院)에 도착하여 각도의 관군과 의병이 검단산(黔丹山)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음. 6일 의성 출신의 김엽(金燁) 3형제가 3일에 쌍령(雙嶺)에서 모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음. 7일 곤주점(困酒店)에 도착하여 조정에서 강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탄함. 9일 용인(龍仁) 도착. 10일 광주 한산(廣州 漢山)에 도착하여 강도(江都)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음. 12일 조정에서 강화를 추진하며 각도의 병사와 의병을 퇴각하도록 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함. 13일 남한산성에 들어가 김상헌·정온 등을 만나 강화의 부당함을 힘써 주장. 19일 최명길 등이 국서를 전달. 23일 오랑캐의 장사 100여 명이 칼을 들고 궐하(闕下)에 도착하여 빨리 강화하기를 요구. 26일 세자가 최명길 등을 거느리고 오랑캐 진영에 감. 27일 출성하여 강화를 체결하기로 결정함. 29일 오달제(吳達濟)와 윤집(尹集)이 척화(斥和)의 죄로 하직하고 청나라 진영에 감. 30일 임금과 세자가 출성하여 청주(淸州)에게 항복. 2월 1일 척화를 주장한 제신(諸臣)과 마주하여 통곡한 뒤 고향으로 출발. 4일 충주에 도착, 5일 조령을 넘어 문경 도착. 9일 오후에 집에 도착

후식 (後讖)

아들 신점(申沾)이 창의록(倡義錄) 뒤에 붙인 후식(後讖). 부군(府君)은 병자호란 때에 의병을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하였으며, 광주에 도착하여 강화의 그릇됨을 주장하였다. 난리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 薇谷 아래 집을 짓고 살다가 임종하였다. 부군은 두 차례나 국난에 나가고 학덕이 높았으나 찰방과 참봉에 그쳐 온축한 바를 펼치지 못하였다. 평소에 건문한 바를 권말에 적어 붙인다

후서(1867) (後敍(1867))

강난형(姜蘭馨)(1813~1881)이 창의록(倡義錄) 뒤에 붙인 글. 호계 신적도 선생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두 차례에 걸쳐 창의(倡義)하고 척화(斥和)를 주장한 분으로 창의는 김식·정홍명(金滉·鄭弘溟), 척화는 홍익한·오달제·윤집(洪翼漢·吳達濟·尹集)과 비슷하니 대의와 높은 절개는 천추에 빛날 것이다

발(1916) (跋(1916))

장석영(張錫英)이 창의록(倡義錄) 뒤에 붙인 발문(跋文). 공은 가학(家學)과 심법(心法)의 정요(正要)를 얻어 학덕이 높았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창의하여 척화를 주장하였다. 후손 돈식(敦植)이 공의 사적이 없어질까 걱정하여 공의 시문과 창의(倡義) 관련 기록을 간행하려고 하면서 나에게 글을 부탁하기에 적는다

호계선생유집권지오(虎溪先生遺集卷之五)

부록(附錄)

유사(1667) (遺事(1667))

신채(申埰)가 아버지 신적도(1574~1663)가 임종한 4년 뒤에 찬한 유사(遺事). 부군은 신흘(申仡)과 박륜(朴倫)의 딸 순천박씨 사이에서 1574년(선조 7) 12월 29일 도암리(陶巖里)에서 출생하였다. 정구(鄭逵)와 장현광(張顯光)에게 수학하여 1605년(선조 38) 향시에 장원하였고, 1606년 열도(悅道)와 함께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614년(광해군 6) 부친과 모친의 상을 당하여 3년상을 치렀고, 1620년(광해군 12) 폐모론(廢母論)에 가담하였던 관찰사 정조(鄭造)가 의성의 빙계서원(氷溪書院)에 이름을 적고 가자 칼로 없애버렸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호소사(號召使) 장현광의 추천으로 의병장이 되어 창의하였고, 대궐에 나가 상소를 올려 상운찰방(祥雲察訪)에 임명되었다. 1632년 제능참봉(齊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다시 건원능참봉(健元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은숙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의병을 이끌고 행재소로 가서 척화오국(斥和誤國)의 상소를 올린 뒤 임금이 끝내 항복하자 집으로 돌아와 薇谷 아래에 채미헌(採薇軒)을 짓고 살다가 1663년(현종 4) 7월 1일 정침(正寢)에서 90세로 임종하였다. 부인은 첨정 순(僉正 淳)의 딸 파평윤씨(坡平尹氏)(1574~1660)로 계란현(鷄卵峴)에 초장(初葬)하였다가 부군이 죽은 뒤 의성현 서쪽 안평면 응봉(安平面 鷹峯)에 장례를 모셨고,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다

행상 (行狀)

김도화(金道和)가 후손 상하(相夏) 등의 부탁을 받아 찬한 신적도의 행상. 선생은 1574년(선조 38) 12월 29일 의성현 도암리(義城縣 陶巖里) 집에서 출생하여 정구와 장현광에게 수학하였다. 1605년 향시에 장원하고, 이듬해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614년 부친과 모친의 상을 당하고, 1620년 관찰사 정조(鄭造)가 빙계서원(氷溪書院)의 원안(院案)에 이름을 적고 가자 없애버렸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창의하여 서울로 가서 상소를 올리고 상운도찰방(祥雲道察訪)에 임명되었으며, 1632년 제능(齊陵)과 건원능 참봉(健元陵 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의병을 이끌고 행재소로 가서 척화오국(斥和誤國)의 상소를 올린 뒤 고향으로 돌아와 학산(鶴山) 薇谷 아래에 채미헌(採薇軒)을 짓고 살다가 1663년 7월 1일 90세로 임종하였다. 12월 20일 안평면 응봉(安平面 鷹峯)에 장례를 지냈다. 부인은 첨정 순(僉正 淳)의 딸 파평윤씨로 집·균·채·점(堦·均·埰·玷) 등 아들 넷, 김상각(金尙瑀)과 정복형(鄭復亨)에게 출가한 딸 둘을 두었다.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제향하고 있으며 1867년(고종 4)에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묘표 (墓表)

홍만조(洪萬朝)(1645~1725)가 찬한 신적도의 묘표(墓表). 신적도는 어려서 정구(鄭逵)와 장현광(張顯光)에게 수학하였으며, 1606년(선조 39)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614년 부모상을 만나 삼년상을 지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병량(兵糧)을 모집하여 출병하였으나 강화가 체결되자 대궐에 가서 상소를 올려 상운도찰방(祥雲道察訪)에 임명되었고, 이후 제능(齊陵)과 건원능(健元陵) 참

봉에 임명되었다. 병자호란 때 의병장으로 출병하여 행재소에 가서 상소를 올렸다. 전식(全湜)과 이경석(李景奭)이 출사를 권했으나 사양하고 귀향하여 薇谷에 초가를 짓고 거주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부인은 兪正 淳의 딸 파평윤씨로 4남 2녀를 두었다

묘표후식(1901) (墓表後識(1901))

이종기(李種杞)가 1901년 5월에 후손 상헌(相憲)의 부탁을 받아 홍만조(洪萬朝)가 찬한 신적도의 묘표(墓表) 뒤에 붙인 글. 1856년(철종 7)에 사림(士林)이 단구(丹邱)에 서원을 세워 제향을 올리고 있고, 1867년(고종 4)에 수의사 박선수(繡衣使 朴瑄壽)가 장계를 올려 통정대부 이조참의(通政大夫 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묘갈명(병서) 13(墓碣銘(并序) 13)

이중철(李中轍)이 후손 돈식(敦植)의 부탁을 받고 김도화(金道和)가 찬한 행장을 바탕으로 하여 지은 신적도의 묘갈명(墓碣銘). 어려서 중형 정봉(從兄 鼎峯) 선생에게 수학하고, 임진왜란 때에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켰으며 아버지의 명에 따라 入山하고 난이 끝난 뒤에 장구와 장현광에게 수학하였다. 1605년 향시에 장원하고 이듬해 동생 열도(悅道)와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614년 부모상을 당하여 삼년상을 치르고, 1627년 정묘호란 때에 거병하여 상운도찰방, 1632년 제릉참봉에 임명되었고, 1636년 의병을 일으켰으며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 학산에 채미헌을 짓고 영재를 교육하다가 1663년에 세상을 떠났다. 孝友와 忠節로 이름이 났으며 사림이 서원을 세우고 조정에서 이조참의에 추증하였다. 부인은 파평윤씨로 4남2녀를 두었다

문소읍지 (聞韶邑誌)

신열도(申悅道)(1589~1659)가 편찬한 『문소지(聞韶志)』 중 신적도 부분을 발췌한 글. 신적도는 1606년 사마시에 급제하였고, 정구와 장현광에게 수학하여 淵源之學을 얻었다. 정묘호란 때에 의병을 일으켜 찰방에 임명되었고, 1632년 제릉참봉에 제수되고, 병자호란 때에 의병을 일으켜 척화를 주장하였다. 학산 미곡에 집을 짓고 살다가 임종하였다

단구서원상량문(1856) (丹邱書院上梁文(1856))

1856년 단구서원(丹邱書院)을 지을 때에 유주목(柳疇睦)이 찬한 단구서원의 상량문. 신적도는 충효가 뛰어나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의병을 일으켜 척화를 주장하였다. 신적도 · 신열도 · 신채(申悅道 · 申埰) 세 분을 단구서원에 모셔 景慕의 뜻을 부친다

봉안문(1856) (奉安文(1856))

1856년 신적도를 단구서원에 봉안할 때 지은 이돈우(李敦禹)의 봉안문(奉安文). 신적도는 충효를 겸하였으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거의하여 척화를 주장하였고, 병자호란 이후 학산 미곡에 집을 짓고 서사(書史)로 자오(自娛)하였다. 신적도 · 신채와 함께 가학(家學)을 계승하고 충효가 뛰어나기에 단

구서원에 모신다

상향축문 20(常享祝文 20)

신적도를 단구서원에 모신 뒤 제향(祭享)할 때 올린 축문(祝文). 신적도는 학문이 스승의 비결을 전하고 의리가 나라의 기강을 부축하였으니 제사가 끝이 없으리라고 하였다

수의박선수계문(1867) (繡衣朴瑄壽啓文(1867))

경상도 암행어사 박선수(朴瑄壽)가 1867년(고종 4) 조정에 신적도의 증직(贈職)을 주청한 啓文. 신적도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의병을 일으키고 상소를 올려 척화를 주장하였으며,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며 교육에 힘쓰다 임종하였다. 그의 충의(忠義)를 포장(褒獎)해야 하니 해조(該曹)에서 품신 해주기를 청하였다

정원초계(1867) (政院草啓(1867))

승정원에서 1867년에 신적도에게 증직해주기를 청한 초계(草啓). 도승지 조성하(趙性夏)는 경상도 암행어사 박선수의 별단(別單)에 의거하여 초계를 올려 도학충절(道學忠節)이 있는 고(故) 찰방(察訪) 신적도에게 증직(贈職)의 은전을 내려주기를 청하였다

이조회계(1867) 21(吏曹回啓(1867) 21)

이조에서 1867년에 신적도의 증직과 관련하여 임금께 올린 계문(啓文). 이조판서 조석우(曹錫雨)는 경상도 암행어사 박선수와 의정부 초계에 의거하여 신적도에게 특별히 증직(贈職)의 은전을 내려주기를 청하였다

교지(1867) (教旨(1867))

철종이 1867년에 찰방 신적도에게 통정대부 이조참의(通政大夫 吏曹參議)에 추증한다는 교지(教旨). 신적도는 도학(道學)이 고명(高明)하고 충절(忠節)이 뛰어나기에 이조참의에 증직하는 전교를 내린다고 하였다

분황고유문(1867) (焚黃告由文(1867))

1867년에 신적도를 이조참의에 추증하는 교지가 내리자 무덤에 고하고 副本을 태울 때에 이조판서 한계원(韓啓源)이 찬한 고유문(告由文). 신적도는 정구와 장현광의 학문을 이었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의병을 일으켰으며 효우(孝友)가 뛰어났다. 200여 년 동안 덕행이 드러나지 않다가 나라에서 이조참의에 증직하니 자손에게는 영광이고 공에게는 보답이 있게 되었다

연증시고묘문(1867) (延贈時告墓文(1867))

1867년에 신적도가 이조참의에 추증되자 후손 신상하(申相夏)가 무덤에 고할 때에 찬한 글. 공은 충

결과 학행이 뛰어나 나라에서 증직의 은전을 내리니 후손들이 감격한다고 하였다

도유생청가증상언 (道儒生請加贈上言)

경상도 유생들이 신적도에게 증직(贈職)을 더해주기를 청한 상言. 충신 신적도는 어려서 정구·장현광에게 수학한 사림의 종장(宗匠)이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의병을 일으켜 척화를 주장하였고, 학산 미곡에 채미헌을 세우고 은거하며 강학하였다. 200년이 지나도 나라의 은전이 없어 울적하였는데 1867년 박선수의 장계로 이조참의에 증직되었다. 그러나 3품의 증직은 그의 정충대절(貞忠大節)과 실덕정학(實德正學)에는 미치지 못하니 증직을 높여주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사림통문(단구서원타령시) (士林通文(丹邱書院妥靈時))

단구서원에 신적도 등의 位牌를 모실 때에 지은 김석유(金奭裕)의 통문(通文). 신적도와 신열도, 신적도의 아들 신채는 덕학(德學)으로 사림이 경모하고 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충의를 떨쳤고 평소 孝友가 뛰어나 양세삼현(兩世三賢)이 배출된 명문이다. 서원에 위패를 모시면서 사림에 통문을 돌리니 많이 참석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호계선생유집권지록(虎溪先生遺集卷之六)

부록(附錄)

사우유찰 (師友遺札)

사우(師友)인 장현광·정온·이준·김응조·정유숙·최현·이경석·이민구·이경용·이당규(張顯光·鄭蘊·李峻·金應祖·鄭惟熟·崔暉·李景奭·李敏求·李景容·李堂揆) 등 10인이 신적도에게 보낸 10편의 편지. 장현광은 편지를 받고 날마다 성현의 서적에 침잠하는 것을 좋게 여겼고, 정온·이준 등은 오래 헤어진 채 만나지 못하는 아픔과 지기(知己)에 대한 그리움을 적었고, 이경용은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문하는 정을 표현하였고, 이당규는 성균관에서 몇 달 전에 떠난 신적도를 그리면서 조만간에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제문 (祭文)

정유숙·이정벽·김상원(鄭惟熟·李廷薛·金尙瑗) 등 3인이 신적도의 덕행을 기리고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3편의 제문. 정유숙은 지난날 정구(鄭述)의 문하에서 수학할 때의 뛰어남과 임천(林泉)에서 자악(自樂)하던 풍모를 그리워하였고, 이정벽은 영남의 도학자로 성덕(盛德)과 대업(大業)을 이루었다고 하였고, 김상원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창의한 충절을 기렸다

만사 (挽詞)

김응조(金應祖)등 21인이 신적도의 학행과 충절을 기리고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22수의 만시. 김응조(칠언률시)·이경석(오언률시)·장응—(칠언율시)·홍여하(오언율시)·申홍망(칠언율시)·남해준(칠언율시)·김상원(오언율시)·김상유(칠언고시)·남몽뢰(칠언율시)·김종일(칠언절구와 칠언율시 각 1수)·박익(칠언율시)·김상기(칠언율시)·김시침(오언율시)·홍인양(칠언율시)·박정벽(칠언율시)·침구(칠언율시)·박회무(칠언율시)·이이송(칠언율시)·김현문(오언고시)·려효민(칠언고시)·정유(칠언율시)의 작품이 차례로 실려 있다

증은하장 (贈恩賀章)

강난형(姜蘭馨) 등 32인이 1867년 신적도를 이조참의에 추증하자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은 39수의 축시(祝詩). 강난형(칠언율시와 칠언절구 각 1수)·이명적(상동)·이휘승(상동)·장석준(칠언율시)·장룡규(칠언율시)·유진휘(칠언율시, 并序)·유지영(칠언율시)·李用基(칠언율시, 并序)·李驥相(칠언율시)·李以伋(칠언율시)·李庭德(칠언율시)·金濟寅(칠언율시, 并序), 許元栻(칠언율시 2수)·金容湜(칠언율시)·黃建周(칠언율시)·金濟源(칠언율시 2수)·張祚遠(칠언율시)·金炳礪(칠언율시)·李相善(칠언율시)·趙錫龍(칠언율시)·丁義元(칠언율시)·申致默(칠언율시)·南夔壽(칠언율시)·宋泰寅(칠언율시)·金喆銖(칠언율시)·丁達教(칠언율시)·柳明均(칠언율시)·李以鉉(칠언율시)·金道和(칠언절구와 칠언율시 각 1수)·申敦植(상동)·許墉(칠언율시)·金翰周(칠언율시)의 작품이 차례로 실려 있다. 대부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창의하여 국난에 나아갔던 충절을 기리고 경모하는 마음을 기탁하였다

후서(1901) (後敍(1901))

후손 申상헌(相憲)이 1901년 3월에 찬한 문집의 後敍. 선생은 학문이 깊고 충효의 행실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저술이 많이 유실되었기에 시문을 찾아 편집하고, 만사와 묘도문(墓道文), 봉안문(奉安文) 등을 뒤에 붙여 간행하고자 한다

발(1916) (跋(1916))

곽도(郭鎬)가 1916년 추석에 후손 신돈식(申敦植)의 부탁을 받아 찬한 문집의 발문(跋文). 후손들이 신적도의 시문 약간을 수습하여 간행하려 한다. 선생은 文武를 겸비하였고, 유편(遺篇) 중 심성(心性)에 대해 논한 여러 설(說)과 용학이도(庸學二圖), 창의록(倡義錄)에서 학문적 성취와 평생의 지향을 엿볼 수 있다

발(1918) (跋(1918))

이중구(李中久)가 1918년 9월에 찬한 문집의 발문. 역대로 도덕과 절의를 겸비한 사람으로는 정몽주(鄭夢周)와 길재(吉再), 장현광(張顯光)과 정온(鄭蘊) 등을 들 수 있는데, 선생의 유집(遺集)과 사적을 보면 두 가지를 겸했음을 알 수 있다

발 (跋)

후손 신상하(申相夏)가 1905년 3월에 찬한 문집의 발문. 아들 신채(申埰)가 유집(遺集) 7책을 편집하였고, 장차 간행하려고 宗家에 보관하였는데 1874년 화재로 모두 불타버렸다. 이에 여러 곳에서 유문(遺文)을 수집하여 겨우 문집을 편집하게 되었다

발 (跋)

후손 신돈식(申敦植)이 1919년 10월에 찬한 문집의 발문. 선생은 학문이 깊고 절의가 뛰어난 분인데, 선대부터 문집을 간행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후손들이 간행하려 의견을 모았기에 몇 마디 말을 적는다

** 참조 **

사우유찰(師友遺札)

張顯光 貴胤陪佐郎。來獲奉喜書、蘇慰不容言。謹審 棣床友、履聯衿做況。日透古聖賢、闔域聞甚 仰。賀顯光耄敗、既劇斷事杜。伏耳懷難牘、悉...

우(又)

鄭蘊 搜溪同苦已閱四十年瞻想一念食息不弛。而地之絕遠、鱗羽無憑。及到密邇、猶未相訪。老境心緒、益切悲憐。備審兄邊消息氣候平 迪、深...

우(又)

李垞 垞啓私門不幸、小子遽爾夭折。白首號蒼、但 有搥胸而已。頃承兄札、亦有喪患。稠疊云。須 學西方解脫之法、以慈愛之...

우(又)

金應祖令姪回謹、承下札憑、審早熟尊體動靜。萬福。 鵠原之樂、融融於海山雲物之表、令人引領 起興、直欲奮袂。而苦被劫緣纏縛、不得自由。奈何時事可慮。仍圖避...

우(又)

鄭惟熟 相去不甚遠、而閱今三載。猶無一會期、老病 人事至。此瞻悵倍切、惟可幸者時。得與允兄 相對晤、語如獲親炙卽惟歲暮調況珍勝弟 喫苦...

우(又)

崔峴 千里夢想之餘、路奉情札、委人致問仰慰如何生。特蒙宥命、罔極之恩、使之生還故土。感泣之外、無以為謝。

우(又)

李景奭 年前、一奉真適我願每想芝眉徒自悵歎。千里手翰忽墜、意表如對慰豁生年來蹤跡不在於朝在鄉時多、眼患亦劇、未得以書相候者久矣、...

우(又)

李敏求 歲律將暮遠、惟政況珍毖、稍慰。瞻想某生、衝寒冒雪、遠赴治下、望須俯採、所控曲賜、如何是生、一家人也。接遇之厚、不待生之喋喋...

우(又)

李景容 承誨兩難、兄有若識。荊州矧此托隣、尤切喜幸。卽奉惠札、感荷百倍。但聞慘遭鵠原之痛、驚悼罔已生、一行作吏無非為親計、躡下嶺 ...

우(又)

李堂揆 自尊離泮、月已周矣。無騎無人、既闕躬造。又未佯候尋、常茹恨卽。玆憑問尊旅、況平迪慰豁十分、士興公耳、又以痘患、再昨俱為出泮...

제문(祭文)

鄭惟熟 昔我大爺、先生倡道於泗上。一世豪邁、俊逸咸歸於門牆。惟時我公早歲負笈、心期遠大、非一藝一行之名志向端的、乃有體有用之學。 ...

우(又)

朴廷薛 吾東文明之運、於斯為盛。而吾南道學之士相繼而起。或因天質之美、或因師友之正。猗我先生、卽其一也。嗚乎、...

우(又)

金尚瑗 猗我先生、奮起南服。山岳之重、松柏之特。唐虞初志、玉不可匱。材可棟樑、文可黼黻。知天有命、遂乃抗節。就...

만사(挽詞)

金應祖[鶴沙]退齋遺緒悔堂傳、餘慶承承世有隳。郵館未容淹逸士、寢郎豈合送殘年。已將榮利輸蘧栩、都把生涯付簡編。耆舊卽今誰復在、仁鄉回首一潸然。

우(又)

李景奭[白軒] 夢裏祥雲路、人間九十年。庭存雙玉樹、家有一青氈。仗義輕身日、封章露膽天。空將舊情誼、沾灑寄哀篇。

우(又)

張應一[聽天堂] 師門先進衆推時、當日惟吾年少時。聖學眞 工窺闕際、皇明高節抗章時。百莫齒德稀千古、三棣輝光盛一時。洛水寒波流不盡、聲聲 嗚咽斷魂時。

우(又)

洪汝河[木齋] 一德公攸好、人間五福宜。伏生那欠壽、謝楛 却嗟卑。蓬島鸞驂去、邱原梓樹悲。自憐生苦晚、未忍紫芝眉。

우(又)

申弘望[孤松] 青春手採鳳池蓮、晚節郵驂騁海邊。一宦明 時如夢寐、九旬平日作神仙。誰知靈劍重淵 會、可占雲仍百代傳。祇是鵝宗長老盡、孤生 宇宙獨茫然。

우(又)

南海準[新村] 大孝家庭有大賢、皇天錫類理當然。早遊國 學聲聞遠、晚長郵亭施澤專。壽享耄期仁可 驗、業遵型典德無愆。病中垂淚今題挽、安得 藍輿更執鞭。

우(又)

金尙瑗[南厓] 東國名臣後、南州孝子孫。早承詩禮訓、晚被 聖明恩。郵館留仁政、雲林避世喧。存亡分此日、垂淚向荒原。

우(又)

金尙瑜 氏出鵝洲夙德升、蟬聯餘慶裕雲仍。忠能殉 國欽哉史、孝著旌門可也曾。有子有孫賢又 繼、宜兄宜弟衆咸稱。擥蓮玉井初何早、攀桂 瑤宮...

우(又)

南夢賚[伊溪] 聞說吾鄉又失公、壽躋仁宅一時空。二三小 子於何考、九十光陰到此窮。篁館胡爲留夜 月、薇亭無復襲春風。身縻海徼難奔走、千里 緘詞愧素衷。

우(又)

金宗一[魯庵] 景仰清芬自幼年、悠悠長恨隔山川。一星昨 夜沉南極、永失人間地上仙。聞韶古國樂魂招、

九臺英靈上九霄。三棣芳名聯製錦、雙蘭終孝又懷瑤。危城岌...

孚(又)

朴翊 蓮榜題名萬曆年、義壇重誓大明天。北門永謝青雲夢、南岳還酣白日眠。孝友傳家人不問、規繩行已自無愆。題詞遠寄難堪恨、辜角生芻置墓前。

孚(又)

金尙琦 啓幅傳來取見之、辭云某月葬親期。鄉中父老猶吾老、公外孫兒又弟兄。劍會延津應此日、鶴歸華表正何時。從今薄...

孚(又)

金時忱 北塞趨省日、東郵歷拜時。萍逢承眷誨、津遣荷恩私。天上星芒暗、人間耆舊萎。平生尊慕意、惟有季哀知。

孚(又)

洪仁量 公家孝友已旌門、善繼風聲在弟昆。蓮榜題名聯有譽、楓墀承命政無煩。蠶牛講究人咸質、熊虎援奔衆所尊。此去肯爲泉下鬼、列仙應待...

孚(又)

朴廷薛 金蘭曾許白眉君、詩禮家風夙所聞。常擬文林承範采、頻因宅相候寒溫。行藏有命身還逸、壽福無疆望益尊。責報他時天可必、佇看餘慶...

孚(又)

沈玖 箕疇五福壽爲先、八臺猶遐又十年。再誓儒壇扶義老、晚歸薇谷養真仙。重泉白髮鵠原會、舊物青氈鳳穴傳。積德如公無復憾、却驚南極晦星躔。

孚(又)

朴檜茂 早年蓮榜棣華名、材器虛違遇聖明。單詮函席傳衣鉢、忠義危城仗纛旌。枌社遙吟紅苧曲、薇亭直與碧山嶸。吾衰未執歸泉紼、題挽深慚...

孚(又)

李爾松 契深先子又同庚、義分平生若弟兄。早歲庠宮名始大、中年郵館宦非榮。箕裘詩禮家聲振、壽考岡陵命道亨。孤露此生常景仰、可堪今日...

孚(又)

金炫文 南土多名勝、山奇水亦清。孕生仙骨聳、爭覩 德星明。詩禮能傳業、藏修豈爲名。微官才不 展、浮世路難行。聞達元非意、漁樵共結盟。機...

우(又)

呂孝閔 高標玉屑滌昏愀、雅量清談孰敢嘲。早抱荊 山和氏、璧、晚來活計海棠巢。萬事生涯風外 絮、百年身勢水中泡。殷勤誼重同瓜葛、姻婭 情...

우(又)

丁瑜 公與先君交契厚、鯁生陪席聽論辭。忠言可 尙封章日、義氣須看赴難時。安享九旬仁驗 壽、孝終雙玉蔭留枝。重泉更合延平劍、千載 精靈應共嬉。

증은하장(贈恩賀章)

晉山 姜蘭馨[叅判]退齋家裏旌雙竹、孝友相傳繼述之。大義嘗 任溪洞主、孤忠再倡廣陵師。兩賢門屏尋真 訣、四子階梯講近...

우(又)

延城 李明迪[判書] 驚心彙月草城黑、天步艱難可奈之。儒服變 爲殲敵幟、鄉丁爭奮覲王師。真卿河北知 何 狀、祖狄江中克...

우(又)

眞城 李彙承[承旨] 一自荊圍冠諸子、橫流障去使東之。堂堂大 義千夫長、凜凜高風百世。師。星夜挺身 惟我 職、雪天灑淚...

우(又)

仁同 張錫駿[承旨] 藉甚南州立卓然、一郵清薄老林泉。春秋大 義三綱在、家國孤心七尺捐。方知吾道終 難 晦、相賀天官待...

우(又)

仁同 張龍達[承旨] 砥柱中流獨屹然、虎溪歸臥樂林泉。山河正 氣三綱立、兄弟初心一死捐。吾祖淵源遺 後 裔、聖時恩渥值...

우병서(又并序)

豐山 柳進徽[判官] 惟我虎溪先生、扶綱斥和之精忠、卓節凜 乎如嚴霜秋日、而至今載在國乘、輝映千 古、豈不偉哉於乎。 ...

우(又)

豊山 柳芝榮[承旨] 天地之間賦浩然、先生道學達如泉。當時已 賀賢臣得、後世終非聖主捐。倡義葵忱惟向日、表忠荷典幸...

우[병서](又[并序])

延城 李用基[縣監] 先生以名門華裔、學有淵源、志切尊周、其 卓異不磨之跡亦足千古、而終不無學高 位卑之憾。今聖上四...

우(又)

星山 李驥相 撫劍中宵氣凜然、虎溪歸臥好林泉。壯心憂 國孤軍赴、清政居官薄廩捐。尊攘華夷明大 義...

우(又)

廣陵 李以伋 東南秀氣苑蒼然、吾道真源混混泉。早歲從 師征邁篤、孤城赴難死生捐。天官始降崇三 品...

우(又)

固城 李庭德 華閩鵝洲有傑然、天曹恩誥耀重泉。孤臣 一介惟求是、義士千金不惜捐。偃室學成承 誨日...

又[병서](又[并序])

光山 金濟寅 自古忠臣義士之敵愾者、何限而顧其忠 義之由乎。學問進退綽綽者、罕見焉。吾鄉 之虎溪...

우(又)

河陽 許元栻 貞忠卓節日星然、赴義何如渴赴泉。衣鉢師 門曾有受、箕裘先業不虛捐。三軍激氣勤 王日...

우(又)

花山 金容湜 挺竹古家節卓然、九天恩誥及重泉。義在 扶綱先自倡、身當蹈刃頓忘捐。南州雅望今 申氏...

우(又)

箕城 黃建周 斥和扶明有孰然、虎溪風雨吼龍泉。克家君 子誠無忝、爲國賢臣義不捐。道學高明師百 世...

우(又)

光山 金濟源 天心人事兩茫然、大報壇前淚似泉。恩重 腰橫三尺去、時危身許一毛捐。黃沙白草非 前日...

우(又)

仁同 張祚遠 丹邱松柏苑蒼然、恩誥翩翩耀九泉。傳家 忠義神鏗在、奕世功名弊屣捐。南國皆稱雙 竹宅...

우(又)

安東 金炳礪 忠義亶由道學然、薇歌幾載老林泉。詩誅藩 賊風稜卓、碑立祥郵月廩捐。地步師門尋妙 域...

우(又)

廣陵 李相善 名賢顯晦有時然、丹誥煌煌賁九泉。薇竹 已知孤節寓、熊魚肯惜一身捐。寒旅門庭高 足弟...

우(又)

漢陽 趙錫龍 先生處世獨超然、薇谷清風寓我泉。寒旅淵 源傳道正、丙丁忠義誓身捐。崇賢恩爵逢 今日...

우(又)

錦城 丁義元 義旅堂堂氣肅然、虎溪當日吼龍泉。源深一 脈曾傳妙、軀重千金不惜捐。邦瘁重遭辰已 厄...

우(又)

宗後學致默 孝竹忠薇兩炳然、家聲世襲老林泉。屢蒙褒 節宜無愧、再舉忘躬不惜捐。左海一隅高士 義、
春王萬曆大明年。彌章道學彌嘉尚、恩 溢三銓被管絃。

우(又)

宜寧 南夔壽 忠義堂堂獨奮然、大明日月耀林泉。抽竹家 聲孤節守、採薇餘韻尺躬捐。鳳詔含丹尚有 日...

又(又)

冶鑪 宋泰寅 忠義千秋炳朗然、先生初服起林泉。斥和章 出藩虞懼、遺愛碑傳郵廩捐。北闕天官馳 有日...

우(又)

閔韶 金喆銖 丙子忠賢凜凜然、虎翁挺出奮龍泉。寒旅門 庭單訣在、竹薇風節尺軀捐。紫誥香烟今 聖世...

우(又)

羅州 丁達教 萬古綱常獨奮然、先生當日起林泉。心懸象 闕天同戴、身似鴻毛義共捐。挺竹清風君子 宅...

우(又) 문성 유명균(文城 柳明均)

文城 柳明均 千秋義氣尚鬼然、馳贈三銓耀九泉。寒旅 淵源尋正學、竹微名節不虛捐。山河回運奎 星歲...

우(又) 광릉 이이현(廣陵 李以鉉)

廣陵 李以鉉 中宵倚劍意悠然、回首皇州淚下泉。殷聖西 山餘曲在、魯連東海擬身捐。儒風復振天官 日...

우(又) 문소 김도화(閔韶 金道和)

聞韶 金道和 若使當年遇聖人、春秋袞筆特書之。三韓義士韶州某、可與西山伯仲之。先生高義烈霜然...

우(又)

后孫敦植 身居東海魯連心、秦帝當年欲蹈之。一疏凜然休萬甲、澹庵義理與并之。私淑退陶有宛然、淵源河洛混如泉。春秋大義三綱立、風雨孤城一命捐。賢德尊祠追...

우(又) 김주 허용(金州 許壩)

金州 許壩 先生仗義昔胡然、爲學真源有混泉。尺疏扶綱曾血瀝、一心圖報擬躬捐。薇歌惻惻同殷老、...

우(又) 문소 김한주(聞韶 金翰周)

聞韶 金翰周 忠孝雙全世孰然、覃恩天降徹黃泉。南還草屋三生在、西指義旗一死...

후서(後叙)

惟我先祖、虎溪府君。存心窮理之學、扶綱斥和之忠、蘊之爲德行、著之爲事業、實百世難泯者也、粵在丙辰、士林尊尚、而俎豆之。逮夫 丁卯、朝家褒賞、而賙贈之將...

발(跋)

虎溪先生申公、有詩文若干。其遺裔之僅僅 掇拾於二百載、蠹燼之餘者也。將謀之剞劂 氏、亦足爲一斑於全豹乎哉。公嘗師事寒旅、二先生潛心於本原之奧、致力於當行...